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The Variable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이진숙*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Lee, Jin Suk*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investigation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360 Pilipino, Vietnamese, Chinese, Chinese-Korean and Japanese woman who had married internationally and were living in Jeonbuk-D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determined tha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examined, age, Korean language abi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ethnic identity had significant predictive effects on the levels of acculturative stress experienced. Young women who had low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ower marital satisfaction, and higher ethnic identity showed more higher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possible support programs for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eywords: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acculturation,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화, 지구화 추세와 맞물려 한국 사회 전체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8%, 2005년 13.6%, 2008년 11.1%(총 345,592 건)로 2001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수의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신국적별로는 중

국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출신국적이 보다 다면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현저한 증가가 사회적 관심의 주체로 부상됨에 따라 이들의 결혼생활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에 관련된 연구들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과 문화적응은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경험으로 보고되어 왔다(Berry, 1990; Berry *et al.*, 1987; Rogler *et al.*, 1991; Sanchez & Fernandez, 1993) 즉, 언어습득의 어려

[†] 본 연구는 2006 태평양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일부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였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Jin Suk

Tel: 063-270-3836

E-mail: jslee0820@jbnu.ac.kr

음, 친숙한 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문화적 불일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Rhee *et al.*, 2003) 문화적응 과정은 이민자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모국문화와 이민 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서(Berry, 1990), 특히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변수로 주목되어왔다(Hwang & Ting, 2008; Oh *et al.*, 2002). 국제결혼이주 여성은 국제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라는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족에서의 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고(양옥경 외, 2009), 특히 ‘국제결혼의 상품화’나 ‘매매혼’으로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대중적 시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언어적 장벽,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의 이주가 아니라 홀로 낯선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국제결혼가정의 증가 현상을 보고하고 있는 타이완의 경우 역시 대다수 국제결혼 여성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타이완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ang, 2008).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를 경험하는 이주자에게 불안과 우울, 정체감 혼란 등의 문제(김희숙, 2006; Hwang & Ting, 2008; Oh *et al.*, 2002; Williams & Berry, 1991)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조사한 연구들(김오남, 2006; 신경희, 양성은, 2006; 양순미,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한건수, 2006)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소수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거나 혹은 연구대상이 특정 민족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 이루어진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노하나, 2007; 박은진, 2007; 양옥경 외, 2009; 이윤효, 2007; 이은혜, 2009) 역시, 중국 및 중국동포(노하나, 2007), 중국과 베트남 이주여성(양옥경 외, 2009; 이윤효, 2007)

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제한적이어서 관련요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처럼 문화적응 관련연구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국동포,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출신국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입한 모국사회의 가족문화의 영향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수용 또는 거부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양옥경 외, 2009). 문화적응이란 이민자들이 모국의 문화와 경합하는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를 수용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긴장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Oh *et al.*, 2002)에 의하면, 언어적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이를 통해 우울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민족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민족적 근원에 의해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Keefe, 1992) 타 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심리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Balasubramanyam, 2005).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한 이주의 특성상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적응과정 외에 한국의 가족생활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므로 가족가치와 결혼만족도와 같은 가족관련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민족 고유의 가족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결혼을 통해 이질적인 가족문화에의 적응이 요구되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가족문화적 특성과 상당한 차이를 경험할 것이며 갈등과 긴장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윤형숙, 2004; 양철호 외, 2003), 남편에 대한 만족과 결혼생활만족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효, 2007; 이은혜, 2009).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관계에 대

한 가치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혼관계에 대한 만족은 어떠한지 등의 요인들은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수별 영향력은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 한국어수준, 거주기간, 소득수준,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이은혜, 2009),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권복순, 2009; 나임순, 2008; 노하나, 2007; 이국희, 2009; 이윤효, 2007; 이은혜, 2009), 거주기간이 길수록(나임순, 2008; 노하나, 2007; 이국희, 2009; 이은혜, 2009),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노하나, 2007; 이국희, 2009; 이은혜, 2009; 이윤효,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으며(노하나, 2007; 안수영, 2008).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노하나, 2007; 이윤효, 2007)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족, 문화적 요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사회로서의 사회문화적 체계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접근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여성들이 문화충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과 이웃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 그리고 문화적응, 민족정체감 변수를 선택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동포, 중국(한족),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민족집단을 포괄하여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밝히고 관련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학적요인, 가족·문화적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북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최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북도내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질문지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 표집의 편포를 막기 위하여 일부는 이주여성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60부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분포를 보면, 일본(28.1%), 필리핀(27.5%), 베트남(16.9%), 중국동포(11.7%), 중국(10.0%)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이민여성의 평균연령은 약 34세이고 연령분포는 30대(43.9%), 20대(30.3%)순이었으며 배우자의 연령은 40대(62.4%)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학력은 고졸(40.8%), 대졸이상(22.2%) 순인 반면 배우자의 학력은 고졸(50%), 중졸(19.7%) 순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이 남편보다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부부가족이 전체의 65%였으며 확대가족은 32%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미만이 35.7%, 100-150만원이 29.7%로 나타나 150만원 미만이 전체의 65% 정도였다. 거주기간은 2년 이내가 전체의 21.9%이고 3-5년 21.9%, 6-9년 23.9%, 10년 이상 23.6%로 나타났다.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말하기, 쓰기와 읽기, 쓰기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약 40% - 47%로 나타났으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보다는 서툰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구 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출신국	필리핀	99	27.5	가족형태	부부가족	55	18.4
	베트남	61	16.9		핵가족	139	46.5
	중국	36	10.0		확대가족	96	32.1
	중국동포	42	11.7		기타	9	3.0
	일본	101	28.1		계	299	100.0
	기타	21	5.8				
	계	360	100.0				
본인연령	20대	105	30.3	배우자 연령	20대	4	1.2
	30대	152	43.9		30대	81	24.0
	40대	82	23.7		40대	209	62.4
	50대 이상	7	2.0		50대 이상	41	12.2
	계	346	100		계	335	100.0
본인학력	국졸이하	8	2.4	배우자 학력	국졸이하	32	10.9
	중학교	45	13.5		중학교	58	19.7
	고등학교	136	40.8		고등학교	147	50.0
	전문대	70	21.0		전문대	15	5.1
	대졸이상	74	22.2		대졸이상	42	14.3
	계	333	100.0		계	294	100.0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 미만	107	35.7	거주기간	2년 이내	102	28.3
	100~150만	89	29.7		3~5년	79	21.9
	150~200만	57	19.0		6~9년	86	23.9
	200~250만	26	8.7		10년 이상	85	23.6
	250~300만	9	3.0		계	352	97.8
	300만 이상	12	4.0				
	계	300	100.0				
말하기 듣기	매우서툴다	36	10.0	읽기 쓰기	매우서툴다	48	14.8
	약간서툰편	79	22.6		약간서툰편	66	20.4
	보통	163	46.7		보통	131	40.4
	약간 잘하는편	51	14.6		약간 잘하는편	59	18.2
	매우 잘한다	20	5.7		매우 잘한다	20	6.2
	계	324	100.0		계	324	100.0

* 결측치로 인해 변수에 따라 조사대상에 차이가 있음

2. 연구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를 이승중(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SSI는 36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ASSI 척도를 사용하되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계수(Cronbach's α)
1요인: 지각된적대감/고립감	8문항	.90
2요인: 지각된차별감	8문항	.86
3요인: 언어스트레스	4문항	.81
4요인: 향수병	5문항	.82
전 체	25문항	.95

본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언어스트레스 관련된 3문항(이인선, 2004)을 추가하였다.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입국하게 되므로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정·보완을 거친 최종 문항은 27문항이었으며 요인분석 실시결과¹⁾ 25문항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2) 결혼만족도

정현숙(1997)이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기초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한 만족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94로 높게 나타났다.

3)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수준

본 연구에서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수준은 한국의 가족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로 조작적 정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 및 가족관계’,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련된 한국적 가치에 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가능한 응답범위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두 문항의 합산 점수를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점수로 사용하였다.

3) 문화적응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수준을 측정하였다. Mendoza 와 Martinez(1989)의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를 수정한 조복희 외(2005)의 척도와 SL-ASIA 척도²⁾의 문화적응 관련 척도 내용을 검토한 후, 본 연구대상인 이주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두 척도에 공통된 주류문화 동화정도의 하위요인은 언어사용과 문화선호, 사회적 관계, 문화적 친밀과 문화정체감으로 확인되어 각 영역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문항을 13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예컨대, 사용언어에 관한 질문의 경우(예: 남편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1점은 ‘항상 모국어’, 2점은 ‘대개 모국어’, 3점은 ‘대략 반반’, 4점은 ‘대개 한국어’, 5점은 ‘항상 한국어’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교류, 문화친밀과 정체감 관련문항(문항 예: “편안함을 느끼는 문화는 어느 민족 것입니까?”) 은 1점은 ‘거의 모두 모국(인)’, 2점은 ‘대개 모국(인)’, 3점은 ‘반반씩’, 4점은 ‘대개 한국(인)’, 5점은 ‘거의 모두 한국(인)’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4) 민족정체감

민족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민족적 근원의 의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민족정체감은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소속감, 자기 민족 집단에 대한 긍정적,

1) 아이겐값 및 Scree test 결과에 근거하여 요인수를 4로 지정하고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KMO 지수는 .94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에 대한 4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62.71%로 양호하였다.

2) SL-ASIA척도(21문항)는 언어(언어, 문화 선호 등 4문항), 친구선택(친구, 자민족 상호작용 등 4문항), 민족정체감(4문항), 행동(5문항), 세대/지역(3문항), 태도(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Keefe, 1992). 본 연구에서 민족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외(2005)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중국동포(필리핀인, 베트남인, 일본인, 중국인)으로서의 인식, 중국동포(필리핀인...)이라는 사실의 중요성, 중국동포(필리핀인...)이라는 자부심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적으로 반대 1점 ~ 전적으로 동의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민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전북도내 14개 시, 군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의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이 반반 정도 분포되어 있다. 2006년 11월 이주여성 관련단체장과 이주여성(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과정에서 질문 문항의 난이도 및 해독능력 등을 평가하여 문항의 이해가 쉽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전문번역가에게 의뢰하여 4개국어(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안한 후 해당국 원어민의 감수를 받은 후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전북도내 시·군 자료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단체에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협조에 응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담당 부서 및 민간 관련단체에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자가 결혼이주여성 관련기관(이주여성지원센터, NGO 단체, 종교단체, 동/면사무소)에 전화 연락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연구협조에 응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7년 2월~4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원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거나 혹은 해당 단체의 책임자가 질문지를 배포한 후 약 2~3주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내 거주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출신국별로 연구대상이 편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였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한국어가 능숙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접촉하여 이들의 친구들을 소개받아 질문지를 전달, 회수하거나 개인적인 소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379부 중 부실자료를 제외하

고 3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관련변수의 경향

1) 문화적응 스트레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50으로 중앙값보다 낮아 보통 이하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M=2.81$) 고국에 대한 향수($M=2.65$), 지각된 차별감($M=2.55$), 적대 및 고립감($M=2.19$) 순이었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 남편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강하지는 않지만 유의한 수준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r=-.26, p<.001$), 본인 학력($r=-.12, p<.05$), 남편학력($r=-.16, p<.01$), 거주기간($r=-.30, p<.001$), 한국어능력($r=-.23, p<.001$), 소득수준($r=-.19, p<.001$) 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국내 거주기간이 짧고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 가족문화적 요인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3>, 전체 평균은 3.46으로 가능한 응답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표 4>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학력

($r=.30, p<.001$), 소득수준($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에 관련된 한국적 가치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동의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3.41로 나타나 가능한 응답범위(1~5점)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남편의 학력과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나머지 인구학적 변수와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표 3>, 전체 평균은 3.29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문화에의 동화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한국어사용 및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선호 및 친밀감 등에서 모국과 한국 반반(3점)보다는 한국문화 선호 및 한국어 사용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문항을 보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한국친구보다 모국인 친구와의 교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학적 변수와 문화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주여성 본인

의 연령($r=.22, p<.001$), 거주기간($r=.30, p<.001$), 한국어 능력($r=.31, p<.001$), 소득수준($r=.14, p<.001$) 등이 문화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민족정체감 수준은 평균 3.24로 보통 이상이였다<표 6>.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보면<표 4>, 본인연령($r=.28, p<.001$), 남편연령($r=.15, p<.01$), 거주기간($r=.22, p<.001$), 소득수준($r=.12, p<.01$)과 민족정체감 간에는 약한 정도의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

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문화적 요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표 5>, 결혼만족도($r=.32, p<.001$), 가족가치($r=.31, p<.001$), 문화적응 수준($r=.30$)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민족정체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

<표 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문화적 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N=360)

	M	SD
문화적응 스트레스	적대/고립감	.81
	지각된차별	.84
	언어스트레스	1.02
	향수병	.93
	전체	.76
가족·문화적 요인	결혼만족도	1.04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	.84
	문화적응	.71
	민족정체감	.91

<표 4> 인구학적 요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문화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N=360)

	본인연령	남편연령	본인학력	남편학력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소득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26***	-.07	-.12*	-.16**	-.30***	-.23***	-.19
결혼만족도	.01	-.01	.04	.30***	.08	.03	.29***
가족가치	-.01	-.04	.12	.13*	.05	.10	.09
문화적응	.22***	.08	-.02	.11	.30***	.31***	.14*
민족정체감	-.28***	-.15**	-.07	-.03	-.22***	-.06	-.12*

* $p<.05$, ** $p<.01$, *** $p<.001$

〈표 5〉 가족·문화적 요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N=360)

	결혼만족도	가족가치	문화적응	민족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1				
가족가치	.37***	1			
문화적응	.25***	.21***	1		
민족정체감	-.04	-.05	-.13*	1	
문화적응 스트레스	-.32***	-.31***	-.30***	.30***	1

*** $p < .001$, ** $p < .01$, * $p < .05$

적상관이 나타났다($r=.30$, $p<.001$). 즉,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고 문화적응 수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며, 민족정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학적 변수와 가족·문화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수는 가족·문화적 요인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문화적 요인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을 회귀식에 1차로 투입하고 가족·문화적 요인을 2차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남편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예측변수로 선정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실시예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회귀식 투입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VIF계수는 2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는 1.70~1.73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³⁾.

〈표 6〉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요인의 영향

(N=360)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Std. Error	Beta			B	Std. Error	Beta		
(상수)	3.71	.39			9.32***	4.08	.49			8.25***
본인연령	-.02	.01	-.19		-2.50*	-.02	.01	-.15		-1.99*
본인학력	.08	.05	.12		1.78	.09	.05	.11		1.71
남편학력	-.07	.04	-.11		-1.63	-.03	.04	-.04		-.66
거주기간	-.01	.01	-.09		-1.23	-.01	.01	-.05		-.74
한국어능력	-.17	.05	-.22		-3.45***	-.12	.05	-.16		-2.52*
소득수준	-.06	.03	-.13		-2.01*	-.03	.03	-.06		-.96
가족가치						-.11	.05	-.15		-2.34*
결혼만족도						-.20	.06	-.21		-3.40***
문화적응						-.08	.07	-.07		-1.05
민족정체감						.14	.05	.18		2.85***
	F=6.77, $p<.001$ R ² =16.9%, Adjusted R ² =.14.4% (D.W=1.69)					F=8.23, $p<.001$ R ² =29.0%, Adjusted R ² =.25.5% R ² -Change: 12.1% (D.W=1.73)				

* $p < .05$, ** $p < .01$, *** $p < .001$, D.W=Durbin-Watson

3) VIF계수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장지인, 박상규, 이경주, 1996, 생활과학연구방법과 통계분석, p.113)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가까우면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허경옥, 배미경, 김기옥, 이승신, 박선영, 2003, SAS/PC를 이용한 통계분석자료분석, p. 444) ¹⁾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로 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결과, 한국어능력($\beta = -.22, p < .001$), 본인연령($\beta = -.19, p < .05$), 소득수준($r = -.13, p < .05$)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이주여성의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16.9% 였다($F = 6.77, p < .001$).

2단계에서 결혼만족도 및 가족가치, 문화적응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증가량은 약 12%이고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1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소득수준의 효과가 사라졌으나 한국어능력, 연령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beta = -.21, p < .001$), 민족정체감($\beta = .18, p < .01$), 한국어능력($\beta = -.16, p < .05$), 가족가치($\beta = -.15, p < .05$), 본인 연령($\beta = -.15,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능력이 낮고 연령이 어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며, 결혼만족도가 낮고 민족정체감이 높을수록, 결혼·양육 등 한국적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을수록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적응상의 어려움과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3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주요 가족·문화적 요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약간 낮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여성 본인의 연령과 학력수준,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소득수준 등 인구학적 변수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한편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 문화적응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민족정체감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영역은 언어관련 스트레스이고 그 다음이 고국에 대한 향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높고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며, 낯선 타국에서 가족, 친지와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과 슬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적대감과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 이민자와는 달리 결혼을 통해 한국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가족·문화적 요인의 경우 결혼만족도 및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 문화적응, 민족정체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 및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수준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와 결혼·양육 등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수준은 모두 중간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의 결혼, 양육관련 가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학력과 소득 등 가족배경변수와 이주여성 본인의 결혼·양육관련 가치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주여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결혼과 가족관계, 양육 등에 대한 기본적 가치가 유사할수록 결혼관계에서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문화적응과 민족정체감 경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수준의 전체 평균은 중간보다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모국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나 음식, 명절, 편안함을 느끼는 문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문화정체성은 대체로 중간수준으로 모국과 한국문화 반반의 응답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자신의 모국인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민족정체감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수준과 정적상관, 민족정체감과는 부적상관에 있으며, 문화적응수준과 민족정체감간에는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민족정체감과 문화적응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Balasubramanyam, 2005) 문화적응과 민족정체감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문화적응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Yasuda 와 Duan(2002)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민족정체감과 문화적응을 동시에 검토한 결과, 문화적응과 민족정체감 간에 중간정도의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민족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민족정체감과 문화적응은 약한 정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나 위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을 보면, 연령이 많고 가계소득이 높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기간이 짧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민족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에 기초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한국어능력, 그리고 결혼만족과 가족가치, 민족정체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학적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변량의 약 17%를 설명하였고 결혼만족도 및 가족가치, 문화적응 변수의 추가 투입에 따른 변량의 증가분은 약 12%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한국적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으며 민족 정체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회귀분석결과, 이주여성의 연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이은혜, 2009)와는 일치하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안수영, 2008)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민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사한 국내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승중, 1995; 이인선, 2004), 결혼이주여성과 일반 이주민, 유학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거주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30, p<.001$)가 있었으나 최종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의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과 거주기간의 정적 상관관계($r=.55, p<.001$)가 있으므로 연령 효과는 거주기간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연령의 독립적 영향력이 나타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한국인 남편과는 연령차가 크다는 점,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좀더 나이든 여성들보다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여성의 어려움과 긴장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2) 한국어능력은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 관련이 있어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권복순, 2009; 나임순, 2008; 노하나,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많은 이민관련 연구들은 주류문화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언어능력은 거주기간과 함께 이민자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Jackson & Lassiter, 2001) 새로운 문화에서의 대인관계와 학업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Bochner, 1986; Kim, 1991; 권미경, 이순형에서 재인용, 2010) 측면에서 문화적응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본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적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지원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야함을 지지한다.

3)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정도와 같은 가족관련요인이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즉 일반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라는 점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에 대한 동의정도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 결혼, 양육 등 한국적 가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주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족가치관의 차이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들 고유의 문화와 가족가치 등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적 가치를 강요할 경우 갈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향후 결혼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4) 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민족정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민족정체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기민족에 대한 정체감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에서 좌절과 긴장, 차별과 고립감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문화적응모델에 의하면(Berry, 1997, 2000; Berry *et al.*, 1989) 이주자가 이주국가의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모국문화에 대한 자기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보다 적응적이라고 제안되어 왔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연구(양옥경 외, 2009)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주류문화를 수용하기보다 모국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분리나 주변화영역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된 바 있다. 즉 한국문화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이 높거나 혹은 두 문화에 대한 정체감 모두를 거부하는 주변화성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측정도구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단순비교는 비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민족정체감의 부적 영향이 나타난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특히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태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동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류문화에의 동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한 거시체계상황에서는 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민족정체감이 강할수록 더 많은 긴장과 좌절,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결과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심리적 복지는 민족정체감에 의해 예측되었으나 문화적응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Yasuda & Duan, 2002)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민족정체감과 심리적 적응,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초점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결혼만족도 증진,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켜야 할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가족생활과 가치나 문화체계에 맞추기보다는 그들 고유의 문화와 가치, 자긍심을 존중하고 상호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주여성 및 가족지원을 위한 방

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언어스트레스와 향수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낮은 타국에서의 슬픔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적응스트레스가 높은 이주여성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민족 집단의 활성화 등도 낮은 타국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문화적응과 민족정체성의 문제: 대다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족과 한국 문화에의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의 민족·나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적 정체의식이 강한 여성들이 일방적인 문화적 동화를 요구받을 경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이질감과 갈등이 커지고 적응상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민족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편대상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이주여성들의 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남편들의 그릇된 결혼관, 아내의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시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한 상황임(김오남, 2006; 신경희, 양성은, 2006; 양순미, 2006)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교육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신청 전후의 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내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존중할 때 결혼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며 이는 여성들의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놓여촌과 도시, 민족집단별로 골고루 표집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과정을 살펴보고 노력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이주여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대상 관련연구들이 주로 소규모 사례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족집단

을 포괄하여 그들의 적응스트레스와 관련요인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민족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참 고 문 헌

-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145-171.
- 권복순. (2009).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9(3), 63-106.
- 김희숙.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노동자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6.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안수영. (200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국희. (2009).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효.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지인, 박상규, 이경주. (1996). **SAS/PC를 이용한 통계분석자료분석**. 서울: 법문사.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주연. (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 채옥희, 홍달아기.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최금해.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허경옥, 배미경, 김기옥, 이승신, 박선영. (2003). **생활과학 연구방법과 통계분석**. 서울: 교문사.
- Balasubramanyam, V.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ty, Self-concept and Acculturation in Asian India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USA.
- Berry, J. W., & Kim.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 P. R. Dasen, J. W. Berry, & N.

- Sartorius(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s* (pp. 207-236). Newbury Park, California : Sage.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Berman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201-234). Lincoln, Nebraska: Nebraska University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0).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5-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Kim, U., & Boski, M.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A review. In P. Dasen, J. W., Berry, and Sar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185-206.
- Bochner, S. (1986).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Adjustment or culture learning? *Austr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47-358.
- Hwang, W., & Ting, J.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
- Jackson, P. B. Lassiter, S. P. (2001). Self-esteem and race. In T. J. Owens, S. Stryker, & N. Goodman (Eds) *Extending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Currents* (pp. 22-2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efe, S. E. (1992). Ethnic identity: the domain of perceptions of attachment to ethnic group and cultures. *Human Organization*, 51(1), 35-43.
- Kim, Y. Y. (1991).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 66-77.
- Mendoza, H., & Martinez, L. (1989).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Ed.), *Exploration in Chicago Psychology*(pp. 71-82). New York: Holt.
-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Rhee, S., Chang, J., & Rhee, J. (2003). Acculturati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Caucasi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38(152), 749-769.
- Rogler, L. H., Corte, D. E., & Malgady, R. G.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6), 585-597.
- Sanchez, J. I., & Fernandez, D. M. (1993). Acculturative stress among Hispanics: A bidimensional model of ethnic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8), 654-668.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i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 Yang Yung-Mei, Yang. (2008). Acculturation and health outcomes among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SA.

Yasuda, T., & Duan, C. (2002). Eth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Asian American and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sian Journal of Counseling*, 9, 1-26.

접 수 일 : 2010. 06. 30.
수정완료일 : 2010. 09. 17.
게재확정일 : 2010. 10. 08.